KFA

Official Sponsors of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그동안 〈KFA리포트〉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첫 창간한 〈KFA리포트〉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잠시 개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름, 참신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장연환, 김동기, 손성삼 님과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필진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KFA REPORT

대한축구협회 기술 · 정책보고서

2013 12
VOL.80

경기 분석
대한민국 VS 러시아
FC서울 VS 광저우 에버그란데

경기 규칙 및 판정 이슈
골키퍼의 볼,
어디까지 뺏을 수 있을까?

생생 스케치
'2013 대교눈높이 초중고리그' 챔피언
신정초, 울산 U-15팀, 포항 U-18팀

나의 선수 시절
노정윤, 일본 J리그를 뒤흔든
최초의 한국인



영남대 우승

축구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Promote the interests of football.)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72세의 축구 열정

글 · 울산 카이사 김정희 감독



중학교 때 잠시 축구를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농구를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 바쁘다 보니 운동은 잊고 있다가 대회 및 생활체육에서 축구에 푹 빠져 13년 동안 울산 카이사라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1942년생 축구마니아입니다.

울산 카이사는 2001년 3월 1일 울산 태화강 둔치 천연잔디 구장에서 12명 소수 인원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회원이 거쳐갔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유소년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원축구팀에도 많은 선수를 보냈고 클럽 자체에서도 좋은 선수를 양성하여 중, 고, 대학까지 진학한 선수가 여럿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축구가 좋아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 지도 방법이나 클럽 운영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 MBC꿈나무축구, 대한축구협회 D급, 영국문화원후원 장애인 및 유소년클럽지도자(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유소년코치) 교육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획득했고, 교재 및 영상 교육 자료로 실기와 이론 공부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고, 우리 클럽을 '즐기는 축구'와 인성 교육을 병행하는 많은 유소년들의 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클럽은 올해 처음으로 권역 주말리그에 출전했으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3승 1무 16패로 권역 11개 팀 중 10위 기록). 하지만 '즐기는 축구'가 모토이듯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스코어 차로 패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축구를 하는 것 자체'로 얻는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동심에 젖어 운동을 가르치고 대회에 출전하며 십여 년의 세월을 축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팀은 주 1회(토요일) 운동하는 클럽으로 2005년부터 MBC꿈나무대회 전국 결선에 7회 출전하였으며 2009년 제1회 남해보물섬배 유소년 클럽 (6학년) 대회우승, 울산시 클럽대회 우승 등 클럽팀으로서는 화려한 성적을 가진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학원 팀이나 육성반을 하는 클럽 팀과는 실력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주말리그에 참석하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또 개인적인 일로 훈련을 빠지는 날도 있어 베스트 11명 모두 모여 연습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능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며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같은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클럽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축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펼쳐보고자 하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축구를 매개체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언제까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 또 건강은 언제까지 뒷받침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하루를 축구로 시작해 축구로 끝내는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축구인 현장에 얽힌 사연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축구인 현장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의 [KFA 소개]란을 통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낼 곳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대한축구협회 KFA 리포트 담당자 앞 (우)110-062, 이메일 try2@kfa.or.kr

Contents

2013. 12 Vol.80



04



28



34

KFA 대한축구협회 기술 · 정책보고서 REPORT

KFA 리포트 2013년 12월 4일(통권 80호, 월간)

발행인 정몽규 **발행처** 대한축구협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http://www.kfa.or.kr**
편집위원 장연환 손성삼 김동기 지윤미 손춘근
대표전화 02)2002-0707 **팩스** 02)2002-0611 **디자인** 어진 02)3442-4551 **인쇄** 본 커뮤니케이션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FA Coaches

02 **감동이 있는 축구 이야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72세의 축구 열정

04 **경기 분석**
• 대한민국 VS 러시아
• FC서울 VS 광저우 에버그란데
• 수원 블루윙즈 VS 울산 현대

10 **독일 축구협회 교재**
지도자를 위한 강의 '유-청소년 지도'

14 **FIFA 기술 발전 프로그램**
기초 체력 및 체력 증진 그리고 훈련

18 **GK 클리닉**
골키퍼 킥의 기본 기술

20 **생생 재활**
밴드 트레이닝

22 **축구 과학 리뷰**
이청용 선수처럼 "방향전환(Change of Direction)"하기

KFA Referees

24 **경기 규칙 및 판정 이슈**
골키퍼의 볼, 어디까지 뺏을 수 있을까?

26 **규칙 풀이코너**
엘리트 심판이 되는 길 – 경기 규칙의 해석과 심판을 위한 지침

KFA Players

27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축구 영어**
The Road to Brazil (로드 투 브라질)

28 **생생 스케치**
그들은 어떻게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장악했나?

31 **나의 선수 시절**
노정윤, 일본 J리그를 뒤흔든 최초의 한국인

34 **화제의 인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이광종 감독

KFA News

36 **대한축구협회 활동보고**
KFA 창립 80주년 '비전 해트트릭 2033' 선포 外

38 **대회 결과**
남자 국가대표팀,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外

글 | 김동기 팀장 기술교육실 국가대표지원팀

홍명보 감독의 첫 원정경기!

FIFA랭킹 19위 상대로 자신감 얻었다. 다양한 조합 시도



경기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일시 2013년 11월 19일
장소 UAE 두바이 알 와슬 FC 스타디움
결과 대한민국 1-2 러시아
득점 김신욱(전6' 대한민국) / 스모로프(전12'), 타라소프(후14' 이상 러시아)

말리-스위스를 연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첫 원정경기에 나섰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이 원정경기로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원정 평가전은 몸에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국내에서 스위스에 역전승을 거둔 나흘 후 UAE의 두바이로 이동해 FIFA랭킹 19위의 강호 러시아를 상대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플레이오프로 밀어내고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알짜배기 강호다. 유럽의 '빅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없지만 자국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짜인 조직력은 결코 어느 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승 제조기'로 불리는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 감독의 실리 축구가 녹아있어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다.

전반전 — 전반 6분 김신욱 선제골. 다양한 공격 패턴 선보여

경기가 시작하자 러시아는 공수의 간격을 좁게 서며 볼에 대한 빠른 접근과 압박을 시도했고, 한국은 상대의 압박에도 침착한 패스 연결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였다. 러시아는 볼을 전방으로 연결한 후 빠르게 수비 라인을 올려 공수의 간격을 좁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전술로 중앙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플레이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 이런 상대의 중앙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양 측면에 배치된 이청용(볼턴)과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상주)가 좌우 측면을 이용한 침투로 러시아의 수비 뒤 공간을 파고들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측면으로 침투한 이근호와 손흥민의 이어받는 패스 후 크로스를 문전으로 침투하던 이청용이 슈팅까지 마무리하며 러시아의 문전을 위협해 나갔다.

6분에는 기성용의 코너킥을 손흥민이 헤딩했고 러시아 수비수의 실수로 문전에 흐르자 김신욱(울산)이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했다. 박종우(부산)와 기성용(선덜랜드)은 중앙 지역에서 경기 조율로 안정감을 줬다. 특히 우리 대표팀은 세컨드 볼을 소유하는 집중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음을 보였다. 실점 이후 러시아의 공수 라인은 더욱 좁아졌고 러시아의 압박 플레이에 한국은 전방으로의 연결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의 압박 플레이에 한국은 수비에서 공간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전반 12분, 러시아의 주장인 로만은 문전으로 들어오며 영리한 힐 패스로 빅토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정성룡(수원) 골키퍼와 마주본 상황에서 강한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다. 이 공은 정성룡 골키퍼의 팔에 맞고 뒤로 흘렀다. 뒤따라 들어오던 스모로프가 허점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수비 지역의 좁은 공간에서 좀 더 집중력 있고 상대의 패스 연결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했다.

한국은 실점 이후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상대를 압박했다. 16분, 상대 수비 지역의 패스 실수를 차단하여 이청용이 슈팅을 했다. 17분에는 김신욱의 헤딩 이후에 침투하던 이근호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섰고 18분에는 러시아가 걷어낸 볼을 기성용이 논스톱 발리 슛을 하는 등 활발한 공격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골키퍼가 연이은 선방으로 우리의 공격을 막아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방에서의 많은 활동량과 이근호, 김신욱에게 연결된 패스 이후 이청용, 손흥민 등 이선에서 침투하는 공격 패턴을 보였다.

전반 중반에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우수한 수비 조직력으로 우리의 움직임이 둔화됐다. 특히 상대의 활발한 공격에 양 측면에서의 수비 전환이 늦다 보니 러시아의 빠른 역습에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드러났고, 러시아의 주장에게서 시작하는 스루패스는 우리 진영을 위협적으로 파고들었다. 우리 수비 라인의 움직임은 조직적으로 이동하지 못했지만 전방에서 활발한 공간 침투를 보인 이근호와 김신욱에게 연결된 볼은 러시아의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었던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후반전 — 세트피스 실점은 아쉽지만 여러 가능성은 긍정적

한국은 김신욱을 빼고 스피드를 이용하기 위해 남태희(레퀴야)를 투입했다. 이후 한국은 측면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미드필드 지역까지 수비를 가담해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이근호와 이청용은 자유로운 포지션 이동으로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전술로 공격을 전개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13분 이청용을 대신해 김보경을 투입하며 러시아의 측면 수비를 노렸으며 손흥민은 이선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찬스를 노렸다.

그러나 한국은 곧바로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다. 러시아의 장신 미드필더인 타라소프에 대한 마크가 늦어 헤딩으로 점수를 내준 것이다. 세트피스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위치 선정이 필요한 장면이었다. 러시아는 수비 라인을 깊게 유지했으며 빠르게 이어지는 속공은 정확한 연결을 보였다. 공격으로의 빠른 접근은 위협적인 상황을 뒷받침했다.

이후 한국은 기성용과 손흥민을 대신해 고명진(서울), 지동원(선덜랜드)을 교체 투입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후반 26분에는 남태희가 문전으로 날카롭게 연결되는 프리킥을 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후반전 중반을 지나자 한국은 크로스와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차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을 노출했다. 상대의 속공에 어려운 경기 진행을 보였다.

후반 40분경에는 문전으로 들어가던 김보경을 노린 패스가 경합 과정을 거쳐 골문을 향했지만 거리가 멀어 동점골을 성공하지는 못했다. 후반전 한국은 볼을 소유했을 때 주변 선수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는 연결이 좋았다.

총평 — 우리만의 색깔 찾을 수 있는 좋은 경험

한국 대표팀은 11월 15일 유럽의 강호 스위스를 홈에서 맞아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혀 밀리지 않고 적극적인 경기 내용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바로 이어진 원정 경기에서 또 다른 유럽의 강팀인 러시아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는 등, 다양한 공격 전술을 보이며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하지만 결과는 말리-스위스의 2연승 이후 3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에 있을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여러 다른 스타일을 가진 강팀과 경기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내년 있을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만의 색을 낼 수 있는 조합을 완성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KFA





글 | 정성천 감독 U-20 여자대표팀 사진 제공 | 프로축구연맹

FC서울, 중국 원정에서 투혼을 발휘했으나 아쉬운 준우승



경기 2013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일시 2013년 11월 9일
장소 광저우 텐허 스타디움
결과 FC서울 1-1 광저우 에버그란데
(1차전 FC서울 2-2 광저우 에버그란데)
득점 엘케손(후13' 광저우) / 데얀(후17' 서울)

지난 11월 9일 중국 광저우 텐허 스터디움에서 '2013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FC서울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상대했다. 아시아 최고의 클럽 팀의 경기는 한-중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질 정도였다.
서울에서 열린 1차전은 2-2 무승부, 중국 광저우에서 벌어진 2차전 또한 1-1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양 팀은 1, 2차전 총 2무를 기록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광저우가 우승컵을 차지했다. 그러나 FC서울은 중국 원정에서 한국 축구의 특징인 매서운 투혼을 발휘해 중국 축구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반전 양 팀 모두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영

서울은 전반전 내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전체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경기 운영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인 데얀이 공격 선봉에 나섰다. 공격 2선에는 콜롬비아 출신 도움왕 몰리나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에스쿠데로, 고요한이 측면 공격수로 위치하였다. 중원에는 주장 하대성과 대표팀에 재승선한 고명진이 공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수비진에는 경고 누적으로 지난 1차전에 결장했던 차두리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다. 왼쪽 풀백은 노련한 수비수 아디가 책임졌다. 중앙 수비는 김진규와 김주영이 변함없이 최후방을 책임졌으며 골문은 경험이 풍부한 김용대가 지켰다.
광저우는 아시아 최고 공격진으로 손꼽히는 엘케손, 무리퀴, 콘카가 공격 삼각편대를 이뤘다. 중앙 수비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영권이 책임졌으며 나머지 포지션에는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양 팀의 공격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위험 상황에는 선수들이 빠른 움직임으로 전방 역습 형태의 플레이를 선보였다. 수비 지역에서는 안전한 빌드업 형태로 빠른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갔다.
서울은 크게 3가지 경기 운영 방식을 보였다. 첫째, 템포를 빠르게 전개하기보다는 여유롭고 느린 공격 전개 방식을 택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즉각적 압박을 시도했다. 압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전원이 수비에 가담해 진영을 지키며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셋째, 빠른 역습으로 상대 수비라인을 흔들어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을 택했다.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던 도중 전반 15분 광저우의 순간적인 역습이 이뤄졌다. 중원에서 엘케손이 측면에 위치한 장린펑에게 패스했으며 장린펑은 컷백(Cut Back)을 통해 최전방의 콘카에게 연결했다. 콘카는 결정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전반 20분이 되면서 볼 점유율이 FC서울에서 광저우 쪽으로 기울었다. 양 팀은 패스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졌으며 슈팅 찬스가 오면 어느 위치에서나 과감히 슈팅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한 채 전반전이 종료됐다.





후반전 데얀-엘케손, 나란히 득점포 가동하며 제 몫 다해

서울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꺼냈다. 고요한 대신 윤일록을 투입했다. 최용수 감독은 에스쿠데로를 오른쪽으로 윤일록을 왼쪽으로 배치한 채 후반을 시작했다.
후반 4분 광저우는 다시 한 번 날카로운 공격을 과시했다. 콘카가 중앙에서 서울의 왼쪽 측면을 단독 돌파한 후 가볍게 왼발로 꺾어 중앙으로 패스를 연결했다. 공을 받은 무리퀴는 2대1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후 슈팅을 날렸으나 김용대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이에 질세라 서울은 후반 8분 몰리나의 코너킥이 뒤로 흘러나오자 하대성이 오른발로 지능적인 칩샷을 시도했다. 그러나 광저우 골키퍼 정성이 가까스로 막아내 아쉬움을 삼켰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수비라인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후반 13분 그 흐름이 깨지고 말았다. 광저우는 수비 진영부터 빌드 업을 통해 하프라인에서 엘케손을 향해 강한 침투 패스를 연결했다. 엘켄손은 가벼운 퍼스트 볼 터치 후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는 골로 연결됐다.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유지하던 서울은 순간적인 라인 유지 실패로 실점하고 말았다.
하지만 서울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14분 중앙으로 연결된 공을 에스쿠데로가 드리블을 통해 데얀에게 패스했다. 데얀은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엘케손과 데얀은 나란히 득점에 성공해 제 몫을 다했다.
희망이 생긴 서울은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며 공격의 비중을 높였다. 광저우는 후반 25분이 지난 후부터 체력에 문제를 드러냈다. 공수 간격이 넓어져 균형이 무너졌으며 공수전환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는 1-1로 끝이 났다.

총평 실점 아쉽지만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 돋보인 서울

서울 최용수 감독은 전반에는 기본적으로 중원의 1/3지역에서 수비 시작 지점을 뒀다. 이를 통해 수비 진영에 숫자를 많이 둠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빠른 공격보다는 서울 진영에서 안전한 빌드 업을 이어갔다. 상대의 공간이 열리면 빠른 역습 형태의 공격 패턴이 전반에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후반 들어 먼저 실점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양 팀은 지속해서 상대의 골문을 두드리며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어냈다. 특히 엘케손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엘케손은 강한 침투 패스를 단 한 번의 터치로 오른발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장면을 본다면 엘케손은 중국 프로리그에서 득점왕을 받을만한 선수임이 분명했다.
서로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양 팀 모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은 1차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서울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물론, 투혼까지 발휘한 경기였다. 수비 지역에서 안정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다 공간이 열리면 빠른 역습 형태로 공격 작업을 이행했다. 광저우는 자국 선수를 모두 중국 국가대표로 구성한 것도 모자라 거액을 투자해 엘케손-콘카-무리퀴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를 갖췄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K리그 챔피언 서울과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거둔 광저우. 양 팀은 1차전 2-2, 2차전 1-1로 총합 3-3이라는 스코어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서울은 잘 싸우고도 아쉽게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KFA

글 | 전경준 KFA 전임지도자 사진 제공 | 수원 블루윙즈

수원과 울산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
파상공세와 빠른 역습, 어떤 축구가 더 강할까?



경기 '2013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
일시 2013년 11월 23일
장소 수원월드컵경기장
결과 수원 1 – 2 울산
득점 염기훈(전34' 수원) /
김승용(전16'), 하피냐(전46' 이상 울산)

울산 현대가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까다로운 상대 수원 블루윙즈를 만났다. 당시 수원은 4연패를 당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경기가 수원의 홈에서 열린다는 점은 큰 변수였다. 수원은 K리그에서 가장 열광적인 응원을 펼치는 서포터즈가 버티는 팀이다.
수원과 울산의 대결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파상공세(수원)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울산)의 정면대결이었다. 올 시즌 서정원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세밀한 축구로 탈바꿈한 수원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고 더욱 세밀하게 울산을 파고 들었다. 하지만 울산은 '철퇴축구'라는 별명답게 단단한 수비를 구축한 후 상대보다 빠른 역습으로 두 골을 넣어 승리를 가져갔다.

전반전 초반 기회 놓친 수원, 울산은 한 발짝씩 앞서가

수원은 4-2-3-1 포메이션으로 울산은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전반 10분 울산 진영 오른쪽에서 수원의 염기훈이 이선침투하는 정대세에게 스루패스를 연결했고, 정대세는 왼쪽 측면 깊숙이 치고 들어가며 한 템포 빠른 크로스를 연결했지만 문전으로 쇄도하는 동료들까지 연결되지 못해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뒤이어 수원은 흐르는 볼을 재차 잡아 짧은 패스를 주고 받은 서정진이 오른쪽 측면에서 정대세에게 다시 패스를 투입했고, 정대세는 한번에 돌아서며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수원은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다. 빠른 예측이 있었다면 완벽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1분 뒤에도 수원에 기회가 찾아왔다. 중원에서 상대 뒷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산토스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골키퍼와 마주본 산토스는 울산의 김승규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 찼지만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수원은 또 다시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울산은 전반 16분 선제골을 넣었다. 역습에서 공을 잡은 하피냐가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로 오른쪽의 이용에게 패스했다. 이용은 김승용에게 정확한 칩 크로스를 시도했고, 김승용은 중앙의 강민수에게 패스를 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노 마크 기회를 잡은 강민수는 정확한 헤딩 슛으로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다.
자신감을 찾은 울산은 전반 25분 수원 진영의 왼쪽에서 이용과 김용태가 짧은 패스를 주고 받은 뒤, 문전에 있는 하피냐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했다. 하피냐는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러닝 점프 헤딩 슛을 시도했지만 이마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며 골대를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수원은 전반 34분 동점골을 넣었다.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김두현이 강하게 문전으로 올렸고, 공은 먼 쪽 포스트로 길게 날아가 염기훈에게 연결됐다. 염기훈은 침착하게 볼을 컨트롤하며 울산의 수비수를 완벽하게 따돌렸고, 오른발 칩 크로스로 울산의 골문을 위협했다. 울산의 김승규 골키퍼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지만, 손끝에 맞은 공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울산은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트렸다. 전반 46분 김승용의 패스를 받은 김성환은 상대 문전에 있는 하피냐와 월 패스를 주고 받으며 이선 침투를 했고, 하피냐는 수원의 정성룡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히 공을 밀어 넣으며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전 사력을 다한 수원, 흔들리지 않은 울산의 수비

두 팀은 전반전과 같은 포메이션으로 후반전을 재개했다. 후반 5분 수원의 정대세는 울산 진영의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돌파해 문전으로 쇄도하는 산토스에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했다. 산토스는 오른발 인사이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볼이 빗맞으면서 골대를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산토스는 후반 6분에도 다시 한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울산 진영의 중앙에서 서정진과 염기훈이 짧은 월패스를 시도했고, 염기훈은 볼을 잡지 않고 이선으로 침투하는 산토스에게 볼을 돌려 놓았다. 하지만 볼이 산토스의 뒤쪽으로 흐르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했다.
후반 12분 수원은 정대세를 빼고 조동건을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다. 울산은 후반 14분 한상운이 상대 문전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장기인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원 정성룡 골키퍼의 정면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빠른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 시도는 굉장히 훌륭했다.
후반 중반 두 팀은 많은 선수를 교체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준비했다. 울산은 김승용을 빼고 김신욱을 투입했으며, 수원은 김두현과 곽희주를 대신해 권창훈과 구자룡이 뛰어 들어갔다.
수원은 후반 31분 울산 진영의 왼쪽에서 홍철이 문전으로 쇄도하는 염기훈에게 크로스를 연결했지만, 울산의 김승규 골키퍼에게 도중 차단을 당해 아쉬운 모습을 연출했다. 후반 40분에는 울산 진영 왼쪽을 돌파한 산토스가 문전 쇄도하는 오장은에게 컷백으로 볼을 연결했고, 왼발로 공을 잡고 오른발로 때린 오장은의 슈팅은 왼쪽 골 포스트를 살짝 벗어났다.
수원은 후반 45분 울산 진영의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홍철이 강한 왼발킥으로 울산의 문전에



올렸다. 이는 문전으로 쇄도한 조동건의 머리에 결정적인 노마크로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골 포스트를 살짝 넘어가고 말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수원은 1-2로 패했다.

총평 수원의 공격축구 vs. 울산의 역습축구… 승자는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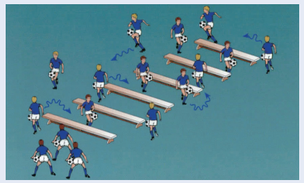
수원의 공격축구와 울산의 수비축구의 한판 대결이었다. 수원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 소유를 높이고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반면 울산은 깊게 내려서서 15~20미터 간격을 유지하는 두터운 수비 블록을 형성해 밀집 수비로 대응했다. 수원의 공격을 차단한 후에는 전방에 있는 하피냐에게 연결해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팀은 수원이었다. 볼 소유를 하며 짧은 패스를 주고 받는 장면과 볼 중심으로 숫자를 동원하는 전략적인 공격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상대 문전에서의 마지막 패스와 한 템포 빠른 슈팅 연결은 아쉬웠다. 수원은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연출하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반면, 울산은 하피냐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도 역습을 시도할 때는 김성환, 한상운, 까이끼, 김용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수원의 공격 후 수비 전환이 늦기도 했지만 울산의 역습이 워낙 빠르고 날카로웠다.
많은 득점 찬스와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수원과, 두터운 수비를 하면서도 효과적인 역습으로 승리를 차지한 울산. 두 가지의 축구 중 어느 축구가 잘하는 축구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수원의 축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수원의 공격 축구와 울산의 수비 축구를 잘 융화시킨 축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KFA

※ 독일 축구협회에서 발간된 유소년 교육용 교재 〈Success in soccer – Modern youth training〉 영문판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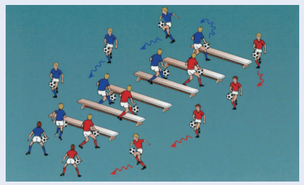
지도자를 위한 강의

유-청소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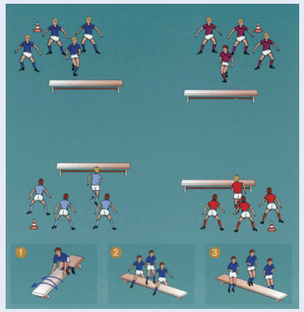
8~12세 훈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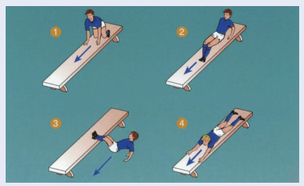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실외 훈련 과정의 예시

〈 워밍업 → 25분간 〉

볼을 이용한 민첩성 향상 훈련 1 〈그림 1〉

의자 6개를 1.5m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한다. 선수들은 3m 간격으로 출발하면서 다음 지시를 따른다.

- 볼을 튀기는 상태에서 정면, 뒷걸음, 옆걸음 자세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통과한다. (응용 : 각 벤치 사이를 지날 때마다 방법을 달리해 본다.)
- 벤치 위로 볼을 튀기면서 지그재그로 통과한다.
- 볼이 튀어오르는 동안 다음 지그재그에 들어간다.

볼을 이용한 민첩성 향상 훈련 2 〈그림 2〉

〈그림 1〉과 같이 설치하되 선수들을 2팀으로 구성한다. 볼을 튀기면서 다음의 지시를 따라 벤치를 넘는다.

- 벤치를 보통 걸음으로 넘는다.
- 벤치를 달려서 넘는다.
- 벤치마다 뛰어 오르내리면서 건너간다.
- 바닥과 벤치에 볼을 번갈아 튀기면서 건너간다.

장애물 경주 1 〈그림 3〉

- 4개의 벤치를 배치하고 4명씩 4팀을 구성한다. 각 벤치에 한 팀씩 대기한다.
- 코치가 신호를 내면 팀 간 경주가 시작된다. 첫 번째 주자가 모든 벤치를 뛰어넘고 돌아오면 다음 주자가 출발한다. 어느 팀이 가장 먼저 경주를 끝내는지 알아본다.
- 응용 : 벤치마다 선수들이 취할 행동을 정한다. 손 짚고 좌우로 뛰기(①), 양발 모아 뛰어오르기(②), 좌우로 뛰어넘기(③)

장애물 경주 2 〈그림 4〉

장애물 경주 1과 동일하게 경주하지만 벤치에서 다양한 동작을 하게 한다.

- 벤치 위를 무릎으로 기어가기(①)
- 벤치 위를 게걸음으로 기어가기(②)
- 벤치 위로 다리를 올리고 옆으로 가기(③)
- 벤치 위에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④)

기본 기술 훈련 〈그림 5〉

장애물 경주 때와 마찬가지로 설치하지만 선수들은 볼을 벤치로 패스하여 굴절시킨다. 각 팀의 2명이 훈련에 임하고 나머지 선수는 각 코너에서 저글링을 실시한다.

- **훈련 1** : 30초 동안 모든 벤치를 드리블로 돌아온다.
- **훈련 2** : 각 벤치에 월패스를 시도한다.
- **훈련 3** : 각 벤치에 월패스를 2번 연속 시도한다.

슈팅 시합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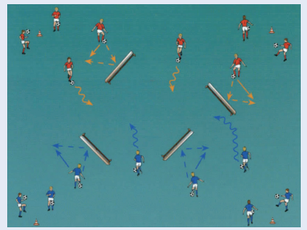
- 코치가 신호를 내면 각 팀의 첫 번째 선수들이 벤치에 월패스를 시도하고 드리블로 슈팅 라인(콘)을 통과하면서 슈팅으로 연결한다.
- 가장 먼저 슈팅 라인을 통과한 선수의 팀이 1점을 얻으며 슈팅을 성공해도 1점을 얻는다.
- 라운드마다 신호로 시작을 알린다.
- 어느 팀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는지 비교해본다.

벤치 골대를 이용한 볼 굴리기 게임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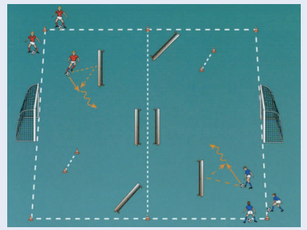
-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선수들은 한 손이나 양손을 이용해 볼을 굴린다.
- 선수들은 볼을 직접 빼앗지는 않지만 대신 패스를 가로채거나 경로를 차단한다.
- 5분 동안 어느 팀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지 비교해본다.

벤치 골대 경기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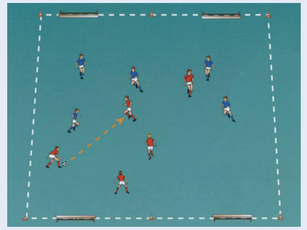
- 실내 필드의 절반쯤에서 4대4로 양 팀이 경기한다.
- 각 팀은 골라인에 배치된 2개의 벤치를 수비한다(벤치의 앞쪽을 필드에 향하게 한다).
- 공을 벤치에 맞추어야 득점으로 인정되며 공격하던 팀이 벤치에서 튀어나온 공을 바운드 없이 받아내면 추가 점수를 받는다.
- 5분 동안 어느 팀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지 비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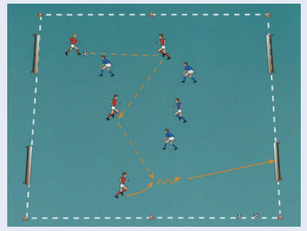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6〉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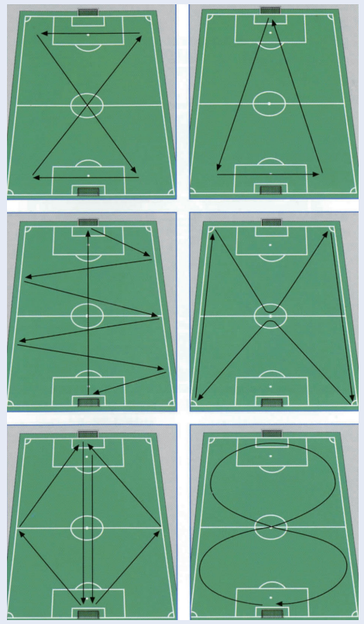


〈그림 8〉

지도자를 위한 강의

유-청소년 지도

14~18세 훈련 과정



〈그림 1〉

지구력 달리기

지구력은 자주 훈련할수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훈련의 필요성이 커진다. 기초 지구력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선수들이 연습 및 실전에서의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달리기에서의 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완만한 속도로(유소년 선수들의 경우 분당 맥박 수 140~160)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모두 30~40분) 달려야만 한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장을 돌지는 말아야 한다. 달리는 경로, 형태, 속도를 바꿈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응용 연습들을 고안한다.

달리기 패턴

필드 사용하기 〈그림 1〉

일반적인 정보

지구력 달리기가 기초 지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운동장 돌기는 지루하다. 즉,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구-친화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달리기 경로에 간단한 변화들을 주는 것만으로도 지구력 훈련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레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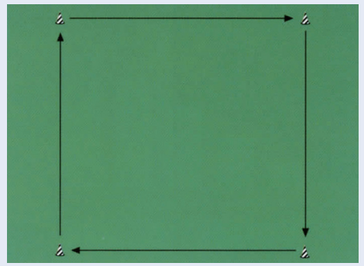
- 달리기 프로그램들은 가끔씩만 사용되어야 한다.
- 파코스를 따라 다양한 지점에 테크닉 훈련들을 포함해야 한다.

레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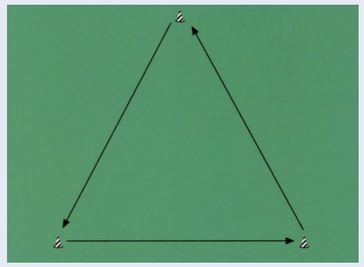
- 달리기 경로와 폼을 다양하게 한다.
- 파코스의 어떤 구역들에서는 선수들이 드리블을 해야 한다.

레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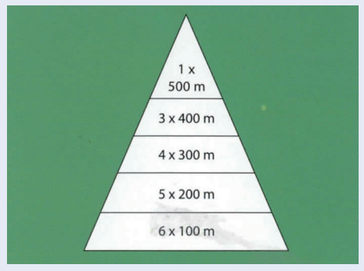
- 달리기 프로그램들이 훈련의 정규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 그것들은 피로 회복에 특히 좋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사각 달리기 〈그림 2〉

1. 훈련 1

한쪽 면이 50m인 정사각형 코스를 설치한다. 선수들은 두 가지 속도로 그 주위를 돈다. 사각형의 한쪽 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서는 가벼운 조깅을 한다.

2. 응용

- 선수들이 빠른 달리기에서 쌓인 피로를 다음의 가벼운 달리기를 통해 회복한다. 껑충껑충 뛰기, 옆으로 달리기, 발뒤꿈치로 킥 하기 등을 한다.
- 슬래롬 코스와 같이 사각형의 한쪽 면에 쉬운 달리기 훈련을 포함한다.

삼각 달리기 〈그림 3〉

1. 훈련 2

선수들이 두 가지 속도를 1대2의 비율로 번갈아 사용하며 정삼각형 주위를 달린다. 한쪽 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그 다음 두 면에서는 가벼운 조깅을 한다.

2. 응용

- 선수들이 빠른 달리기에서 쌓인 피로를 다음의 가벼운 달리기를 통해 회복한다. 껑충껑충 뛰기, 옆으로 달리기, 발뒤꿈치로 킥 하기 등을 한다.
- 선수들이 1대1의 비율로 두 속도를 번갈아 사용한다.

피라미드 달리기 〈그림 4〉

1. 훈련 3

선수들이 완만한 속도로 일련의 '지구력 달리기'들을 한다. 한 번의 달리기 후 선수들은 그 두 배의 거리를 조깅한다.

지구력 달리기 거리들 : 6 X 100m, 5 X 200m, 4 X 300m, 3 X 400m, 1 X 500m.

2. 응용

- 선수들이 첫 번째 거리(100m)를 한 번만 달리고 그 두 배의 거리를 조깅한다. 이후에는 다음 거리를 한 번만 달리고 그 두 배의 거리를 조깅한다.
- 조깅 대신 선수들이 다양한 가볍게 달리기를 활용한다.

※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간한 유소년들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KFA에서 번역했습니다.

기초 체력 및 체력 증진 그리고 훈련

근력

근육은 훌륭한 스포츠맨을 완성하기 위한 초석이며 경기의 모든 활동에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축구선수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 경기 중에는 최소 10km 이상을 뛰지만 동시에 몸싸움도 한다. 수없이 스프린트를 하며 공중 볼 경합과 슈팅을 해야 한다. 이런 축구선수의 근력은 다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몸 전체에 뻗어 있다. 그러므로 근육은 잘 발전되어야 하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한다.

■ 근력 훈련의 목적

- 근육 활성화(근력의 급증) 스피드에서의 향상과 톱 클래스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의 기질 향상, 근육 내 발전과 근육 속 코디네이션은 기능적 기초를 나타낸다. 운동 원리, 즉 플라이오메트릭 또는 재활성화 근력인 운동기본 원리에 있어서 다른 결정적 신진대사에 의해 강화된다.
  기능적이면서 신경 단위의 적응 ▶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경기력 잠재력의 증진

- 근육 부피 증가, 새로운 근력 향상에 대한 기초 증가를 통해 에너지 잠재력을 팽창시킨다.
  구조적 적응 ▶ 견고하고 운동적이며 근육 기초 증진

- 에너지의 흐름을 근육 속으로 발전시킨다.(에너지 통로)
  에너지 적응 ▶ 더 나은 근육 출력을 위한 기초

축구선수에게 있어 근력 훈련 및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향상하는 데 있어 질적인 면과 상세한 측면 모두를 보아야 한다.

- 스피드
- 출발 시 근력
- 점프 근력 및 파워
- 슈팅 근력
- 몸싸움에서의 근력
- 자신감
- 관절, 근육 및 인대 부상 방지



■ 근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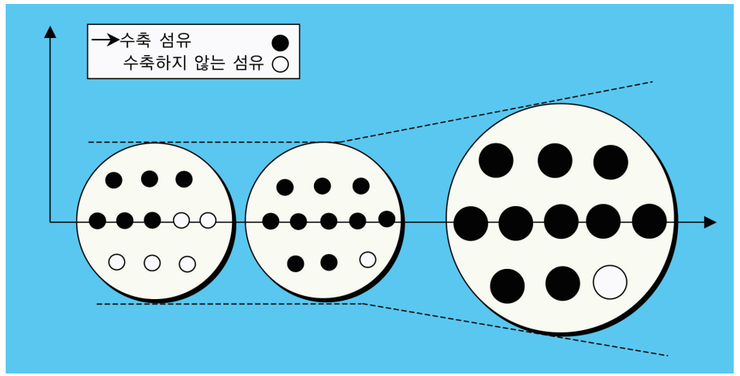
- 총 몸무게의 40~50%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다. 개인별 유전 차이로 섬유 지근과 섬유 속근의 비율은 각자 다르다.

근육의 조직 및 다양한 유산소 또는 무산소 효소를 드러내는 조직의 화학 성분에 의해 분리되는 두 종류의 근육 섬유의 결과로 인해 근육 수축이 가능하다.

- Type 1 : 지근형 빨간 근육 섬유는 거의 모두가 유산소 신진대사에 의존한다.
  – 이런 섬유는 지구력을 요하는 스포츠에 가장 적합하며 피로 저항력이 강하다.

- Type 2A 및 2B 속근, 긴장근
  – FTa 섬유는 유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 중 하나에 합류된다.
  – FTb 섬유는 원래 무산소 적응에 기여한다.
  – 피로에 특히 저항하지 않는 빠르고 강한 섬유이다.
  – 이런 섬유는 스피드, 근력 및 폭발적 근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에 가장 적합하다.

〈근력 훈련의 신진대사〉 (Fukunaga 원본 수정,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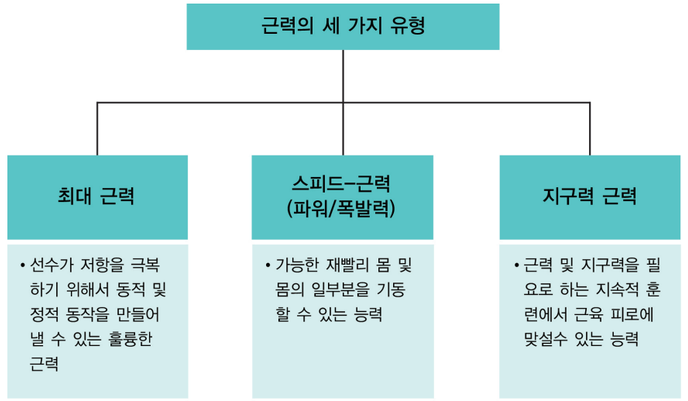
우선은 신경분포에 발전이 오고 이후 근 섬유 비대가 따름

〈축구선수의 근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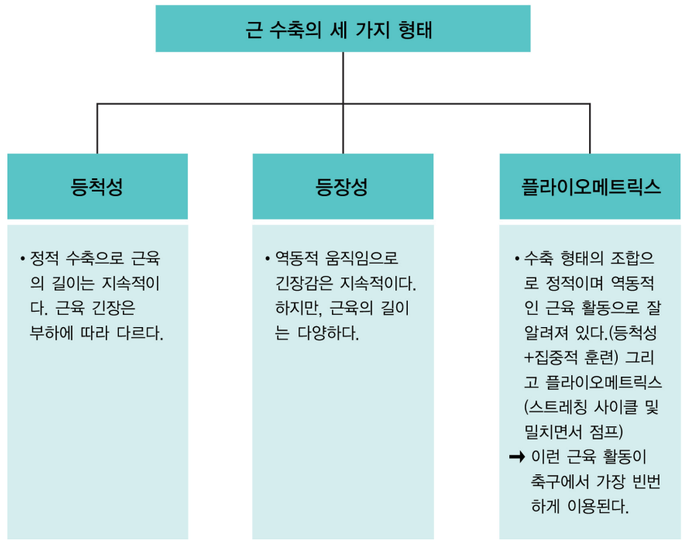
상지	몸통	다리
대흉근 – 어깨 내림근 – 어깨 내전	**승모근** – 견갑골의 융기 및 내전 – 목덜미 및 머리 안정	**둔부근육** – 넓다리 확장(대둔근) – 넓다리 벌림근(중둔근)
광배근 – 어깨 내전 및 내부 회전 – 어깨 내전	**복근** – 몸통 안정 – 몸통 굴곡(복직근) – 몸통 회전(배가로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벌림근** – 엉덩이 내전 **큰허리근 및 작은허리근** – 엉덩이 굽곡
삼각근 – 어깨 외전 – 상완 올림	**등쪽근** – 몸통 안정 – 척주 확장(목덜미, 허리근)	**대퇴근** – 무릎 신전
이두근 – 어깨 굴곡 – 상완 굴곡		**슬와근** – 엉덩이 신전 – 무릎 굴곡 및 회전
삼두근 – 팔꿈치 신전 – 어깨 신전		**비복근+가자미근(장딴지)** – 발바닥쪽 굴곡 – 무릎 안정
		앞정강근 – 발바닥 확장(등쪽근 굽힘)

움직일 때 길항근(반대 근육)이 이완됨과 동시에 우리는 한 두개의 주근육과 접촉을 한다. 따라서 다리를 구부리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과 무릎 근육을 접촉해야 한다.
훈련 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 근육 외 반대쪽 근육까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근력 훈련〉



근력 발달 및 근 훈련은 위 세가지 형태의 혁신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근 훈련은 근육 수축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글 | 김풍주 고양대교 여자축구단 수석코치

골키퍼 킥의 기본 기술



골키퍼의 킥은 팀 공격의 제 1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들은 공격을 하기 좋은 킥을 전방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골키퍼가 얼마나 좋은 킥을 보내느냐에 따라 팀의 공격도 결정된다. 골키퍼는 날씨, 그라운드 상황, 팀의 공격 방법, 상대의 능력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킥을 선택해야 한다.

■ 골키퍼가 활용하는 킥의 종류

1. 골킥



① GK는 디딤발로 견고하게 중심을 잡는다.
② 볼이 디딤발 옆에 왔을때 정확히 임팩트한다.
③ 볼을 차는 발은 강, 약 조절을 통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한다.
④ 인스텝 킥을 활용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찬다.

2. 백패스 킥



① GK는 굴러오는 볼을 주시하며 디딤발로 견고하게 중심을 잡는다.
② 볼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디딤발 옆에 왔을때 정확히 임팩트한다.
③ 강, 약 조절을 통해 볼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한다.
④ 인사이드, 인프런트, 인스텝으로 원하는 방향을 향해 찬다.

3. 프레스 킥



① GK는 프레스 킥을 통해 페널티에어리어 밖에서 킥을 할 수 있다.
② 볼을 지면에 굴려 킥한다.
③ 디딤발을 견고히 하고 볼은 디딤발 옆에 둔다.
④ 볼을 차는 발은 강, 약 조절을 통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이드 하프 발리 킥



① 발을 내딛기 직전에 배 부근에서 볼을 떨어뜨린다. ② 볼을 떨어뜨리는 위치의 바로 옆에 첫 발을 내딛는다. ③ 디딤발은 중심을 견고하게 잡는다. ④ 볼이 디딤발의 정강이 주위에 떨어졌을 때 타이밍에 맞춰 인스탭으로 정확하게 볼을 찬다. ⑤ 볼을 차는 발의 강, 약 조절을 통해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

5. 사이드 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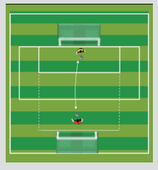
① GK는 발리슛과 똑같이 볼을 차내는 방향에 정면이 아닌 옆을 향한 자세로 한다. 볼을 차는 위치가 디딤발의 무릎과 허리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② 몸을 옆으로 비틀어 디딤발은 단단히 중심을 잡고 볼을 차내는 방향에 내딛는다.
③ 디딤발을 회전축으로 차는 발을 스윙 시켜 아웃 브론트로 찬다. 임팩트의 포인트가 너무 낮은 위치면 볼이 높게 올라가므로 의미가 없다. 디딤발의 무릎 부위가 무리가 없는 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다. ④ 볼을 항상 같은 포인트에서 임팩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낮은 위치에서 찬 볼은 높게 올라가기 쉽고 높은 위치에서 차면 몸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쉽다.

6. 드롭 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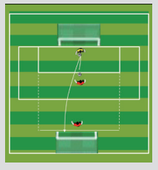
① 배 부근에서 볼을 떨어뜨린다. ② 볼이 낙하하는 바로 옆에 디딤발을 내딛고 중심을 견고하게 잡는다. 볼보다 디딤발이 뒤쪽에 위치해야 차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디딤발이 볼의 옆에 없으면 볼을 정확히 임팩트할 수 없다. ③ 볼이 튀어 오르는 순간이 임팩트 타이밍이다. ④ 인스텝 킥으로 덮는 듯이 볼을 찬다. ⑤ 볼을 차는 발의 강, 약 조절로 볼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GK의 킥 훈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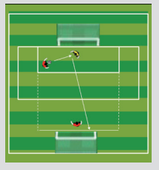
① 그리드 20m X 11m
② 골대 2개, GK 2명
③ GK는 반대에 있는 GK에게 킥을 해준다.
④ 반대에 위치한 GK는 캐칭한다.
⑤ 연속적으로 킥 훈련

GK의 킥 훈련 2



① 그리드 20m X 11m
② 골대 2개, GK 2명, 서버 1명
③ 5m 앞에서 서버는 앞에 있는 GK에게 찬다. GK는 캐칭한 다음 앞쪽에 있는 골대에 킥을 해서 골을 넣는다.
④ 반대에 위치한 GK는 세이빙한다.
⑤ 연속적으로 킥 훈련

GK의 킥 훈련 3



① 그리드 20m X 11m
② 골대 2개, GK 2명, 서버 1명
③ 5m 대각선에서 서버는 앞에 있는 GK에게 볼을 찬다. GK는 캐칭한 다음 앞쪽에 있는 골대에 킥을 해서 골을 넣는다.
④ 반대에 위치한 GK는 세이빙한다.
⑤ 연속적으로 킥 훈련

글 | 공윤덕 KFA 의무팀 재활트레이너 모델 | 김진수 알비렉스 니가타

밴드 트레이닝

실전을 위한 예행연습.
축구를 위한 특성화 밴드 트레이닝

밴드 트레이닝은 자유로운 운동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특성상 여러 종목별로 특성화할 수 있다. 축구 경기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회에서는 패스, 킥 슈팅 등 기본적인 운동법들을 소개하며 이를 기본으로 선수들이 여러 가지 동작을 응용하여 축구를 위한 밴드 트레이닝을 시행해 보길 바란다.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훈련을 하거나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에 의한 손상은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보강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시킨다면 손상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이미 부상으로 인한 손상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보강 운동을 통해 재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 경기력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보강 운동을 할 때에는 정확한 자세와 올바른 운동법을 알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밴드 운동의 시작 자세에서는 항상 밴드가 신장된(팽팽해진) 상태에서 시작하여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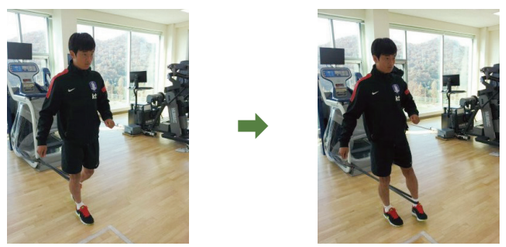
인사이드 패스

시작 자세 밴드를 뒤에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할 쪽 발목을 밴드에 걸고 디딤발을 딛는다.
동작 인사이드 패스 동작으로 시행한다.
Tip 디딤발에 발란스 보드를 활용하면 균형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아웃사이드 패스

시작 자세 밴드를 뒤에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할 쪽 발목을 밴드에 걸고 디딤발을 딛는다.
동작 아웃사이드 패스 동작으로 시행한다.
Tip 디딤발에 발란스 보드를 활용하면 균형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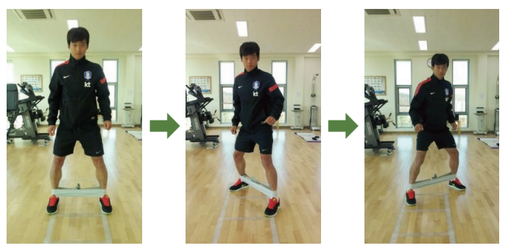
킥 및 슈팅 ①

시작 자세 밴드를 뒤에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할 쪽 발목에 밴드를 걸고 디딤발을 딛고 한 발로 선다.
동작 무릎을 쭉 펴서 디딤발보다 반 보 정도 더 앞으로 나가도록 찬다.
Tip 디딤발에 발란스 보드를 활용하면 균형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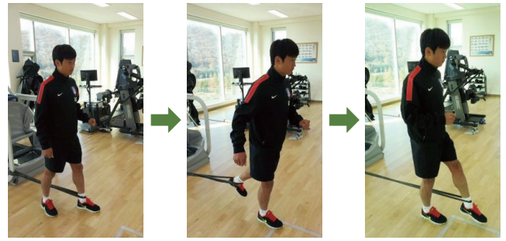
1대1 디펜스

시작 자세 밴드를 묶어 양발에 걸고 정면을 보고 선다.
동작 좌/우 대각선 뒤로 다리를 뻗어 뒤로 무르면서 운동을 진행한다.
Tip 수비 시 대인 마크 동작을 생각하면서(이미지 트레이닝과 동시에) 시행한다.



킥 및 슈팅 ②

시작 자세 밴드를 뒤에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할 쪽 발목에 밴드를 걸고 앞으로 한 발 내딛고 선다.
동작 디딤발을 앞으로 디디며 바로 슈팅 동작으로 연결한다.
Tip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자연스럽게 슈팅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자세와 올바른 운동법만이 보강/재활 운동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밴드 트레이닝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밴드 트레이닝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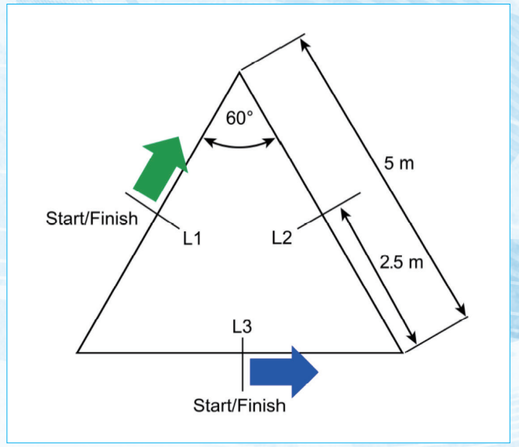
글 | 정태석 KFA 기술위원, 분당 SPR Center 센터장

이청용 선수처럼 “방향전환 (Change of Direction)”하기

최근 스위스,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 국가대표팀에서 단연 이청용 선수의 종횡무진 활약이 눈에 띄었다. 국내는 물론 잉글랜드 프로축구계에서도 익히 알려진 경기를 읽는 탁월한 축구지능 (football intelligent)과 더불어, 근래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측면 혹은 중앙으로 파고드는 돌파 능력은 상대 수비수의 예측을 불허한다. 이는 곧 소속 팀이나 대표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타고난 빠른 가속력과 스피드는 순간적인 방향전환 (change of direction)과 더해져 상대 문전에서 끊임없이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경기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를 따돌리는 좌우 방향전환력은 ‘Man of the Match’로 선정될 만큼 파괴력이 대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청용 선수처럼 유스 선수들 방향전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방법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References
Keiner, M., Sander, A., Wirth, K. & Schmidtbleicher, D. (2013). Long term strength training effects on change-of-direction sprint performance. Journal of Strength & Conditioning Research, Epub ahead.



〈그림 1〉 방향전환력 테스트 모형

축구경기는 스프린트, 빨리 달리기, 조깅, 점프, 착지, 태클 등을 포함해 경기당 약 1,300회 이상 동작변화를 요한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경기 동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보다는 수시로 가속과 감속을 비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팀의 경기속도를 조율하거나 상대 팀의 플레이를 방어한다. 특히 경기 중 공격수들은 단조로운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전개해야 수비라인을 돌파하고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수비수는 공격수의 방향전환에 대처할 수 있어야 위험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청용 선수는 측면 공격수로서 가장 모범에 가까운 방향전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방향을 바꿔 다음 목적지로 가속하는 기술은 수비 혹은 공격 선수 모두에게 경기력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체력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를 풀어 나가는 개인 전술로서도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스 선수 시절에 반드시 발달시켜야 할 부문이다.

최근 독일 연구팀은 유스 축구선수들의 방향전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einer, Sander, Wirth & Schmidtbleicher, 2013). 주 3~4회 정기적으로 전문 축구훈련을 시행하는 112명의 프로팀 산하 (U20, U18, U16) 엘리트 축구선수들 (키 : 184±7Cm, 몸무게 : 78±7Kg)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중 한 그룹만 주당 이틀간 근력훈련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근력훈련 그룹의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백스쿼트〉, 〈프론트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넥프레스〉, 〈스탠딩로우〉, 〈코어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올바른 리프팅 테크닉 훈련을 포함해 시기별로 주기화하면서 4~10씩 X 3~5세트를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가 선수들을 2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근력 및 방향전환력의 변화를 관찰했다. 방향전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5m 길이의 정삼각형으로 구성된 테스트 코스에서 방향전환 후 스프린트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1). 테스트는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두 번 60도 각도의 방향전환을 한 후 골인지점을 통과하는 방법으로써, 오른쪽 (R), d왼쪽 (L) 방향에서 각각 두 번씩 시행하면서 각각 5m, 10m 지점에서 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근력의 변화는 근력 훈련 그룹에서 모든 선수가 상체, 하제 근력이 모두 향상되었고, 특히 15세 이하에서 근력 훈련을 시행한 선수들의 경우 세 배 가까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근력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방향전환력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근력 훈련 그룹에서 평균 5–10% 향상된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예를 들면 U16 선수들의 경우, 첫 번째 방향전환 후 5m와 두 번째 방향전환 후 10m에서 측정된 시간이 각각 1.8s→1.7s, 3.5s→3.2s 로 평균 0.1~0.3 가량 향상되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2년간 근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선수들의 방향전환력은 34명의 1, 2부 프로선수들의 결과 (L5 1.7 ¡ ¾0.06, R5 1.7 ¡ ¾0.05; L10 3.2 ¡ ¾0.10, R10 3.2 ¡ ¾0.08)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향전환력 향상의 결과는 단순히 근력 증가로 인한 효과뿐만 아니라 근력 훈련에 의한 신경근육계의 추가적인 변화들, 즉 민첩성, 동작수행기술, 반응시간 등의 변화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상대보다 항상 한 발 더 앞서야 경쟁 우위를 점하는 축구경기에서 0.1~0.3s 와 같은 방향전환력의 변화는 방향전환 후 수 미터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이런 작은 변화가 공격수의 경우 이청용 선수처럼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기회를 만들 수 있고, 수비수의 경우 쉽게 공격수를 막아 슛을 저지할 수 있게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근력훈련 효과들 (스피드 향상, 점프력 향상, 킥속도 향상, 부상 예방 등)과 함께 이 연구에서 얻은 방향전환력 향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유스 선수들에게 근력 훈련은 유용한 훈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유소년 선수들에게 근력 훈련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부상예방과 체력향상을 고려한 올바른 기술 습득과 적절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KFA

글 | 강치돈 KFA 심판국 교육위원

골키퍼의 볼, 어디까지 뺏을 수 있을까?



축구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영상에는 골키퍼의 실수가 단골 메뉴다. 하지만 때로는 골키퍼로서는 억울한 오심이 재미있는 영상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10월 19일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첼시FC와 카디프시티의 대결에서 나온 에당 아자르(첼시)의 득점 장면이다.

0-1로 뒤진 홈팀 첼시는 전반 32분 에당 아자르가 동점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한 오심이 발생했다. 카디프시티의 데이비드 마셜 골키퍼가 볼을 잡고 땅에 바운드하려는 찰라, 근처에 있던 첼시의 사무엘 에투가 볼을 가로챈 것이 동점골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FIFA의 경기 규칙서에 의하면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골키퍼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반칙이다.

에당 아자르의 득점은 골키퍼가 가진 볼을 뺏어서 득점을 한 경우다. 특히 골키퍼가 바운드시키는 공을 낚아채는 것은 분명한 위반이기에 에당 아자르의 득점을 인정한 주심의 판정은 오심이라 할 수 있다.

'골키퍼가 소유한 볼이 언제부터 방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앞서 FIFA 경기 규칙서에 나온 바와 같이 골키퍼의 양 손 사이, 또는 골키퍼의 손과 어떤 표면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골키퍼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이때는 설사 골키퍼의 신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골키퍼가 소유한 볼만 건드렸다 하더라도 도전 행위 자체가 반칙으로 인정된다.

또한 골키퍼가 볼을 지면에 바운드하거나 공중에 토스하는 동안에도 골키퍼의 소유로 인정된다. 사무엘 에투의 반칙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엘 에투의 오심 장면을 보고 이를 따라하는 선수가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 심판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양손으로 잡으면 도전해서는 안 되고, 한 손으로 잡았을 때는 도전해도 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FIFA 규정이 도입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구전된 경우였다. FIFA 경기 규칙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골키퍼와 관련된 위반 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6초룰'이다. 간접 프리킥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이 골키퍼의 '6초룰' 위반인데, 주심이 정확히 6초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규칙서에 명기돼 있는 만큼 주심이 처벌을 하더라도 어필할 수 없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초 룰' 위반에 대해서 심판들이 완고하게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겨울 교육에서는 '6초 룰'에 대해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 중 주심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지난 '2013 대교눈높이 전국 초중고리그' 왕중왕전에서도 나온 상황이지만 주심이 경기 중 공에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심이 공에 맞았다는 것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심은 어떻게든 선수들의 플레이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리그로 내려갈수록 주심이 공에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 초등리그의 경우에는 3급 심판이 투입되고, 경기 경험이 부족한 심판들이 출전하다 보니 너무 의욕이 앞서서 생기는 경우다. 게다가 초등리그의 경우는 경기장 사이즈도 작고, 아이들의 플레이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단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대각선을 유지하며 경기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심은 언제나 부심과 플레이어를 한 시야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해야 주심과 부심이 여러 각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FIFA에서는 볼과 주심의 적정한 거리로 20~30m를 권장했다. 하지만 볼의 성능이 개선되고, 선수들의 기량도 정교하게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10~20m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심은 경기의 흐름을 예측해 플레이가 벌어질 위치에 미리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

몇 가지 요령을 설명한다면 볼은 항상 골문 쪽, 혹은 선수들이 많은 쪽으로 오기 마련이다. 또한 볼의 동선과 주심의 동선이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심은 볼의 이동을 지켜본 후 뒤따라 가는 것이 옳다. 때로는 심판의 가랑이 사이로 공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로 인해 선수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선수와 부딪힐 우려가 있다면 미리 인기척을 내 선수들에게 주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온다면, 가장 좋은 것은 공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다. 점프를 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되기도 하며, 쓰러지더라도 일단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부심 역시 공이 굴러와도 공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심판은 최대한 플레이를 가까이서 봐야 권위가 선다. 심판이 늘 플레이의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다. 늘 플레이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칙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FIFA에서는 심판이 한 경기당 최소 11km를 뛰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수보다 많이 뛰는 것이다. 따라서 후반전이 되면 주심의 체력 저하가 심하므로 쓸데없이 체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KFA

골키퍼가 범하는 위반들

골키퍼는 볼을 자신의 손으로 6초를 초과하여 소유(컨트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골키퍼는 다음의 경우에 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볼이 골키퍼의 양 손 사이 또는 골키퍼의 손과 어떤 표면(예, 지면, 자신의 신체) 사이에 있는 동안
- 손을 편 채로 팔을 쭉 뻗어 볼을 잡고 있는 동안
- 볼을 지면에 바운드하거나 공중에 토스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골키퍼가 양손으로 볼의 소유를 획득했을 때, 골키퍼는 상대 선수에게 도전받지 않는다.

인 플레이 중의 위치 선정

권장 사항

- 주심과 진행 측 부심 사이에 플레이를 두어야 한다.
- 진행 측 부심은 주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넓은 대각선 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플레이 외곽을 향해 머무는 것은 플레이와 진행 측 부심을 주심의 시야에 더 쉽게 두도록 한다.
- 주심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관찰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
-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볼 근처가 아니다. 주심은 아래 상황에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선수 간의 저돌적인 대립이나 충돌
  - 플레이가 전개될 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반
  - 볼이 멀리 플레이된 후 발생하는 위반



엘리트 심판이 되는 길

경기 규칙의 해석과 심판을 위한 지침



추가 부심의 의무와 책임

추가 부심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관리하는 주심을 돕는다. 추가 부심들은 주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경기 운영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 주심을 조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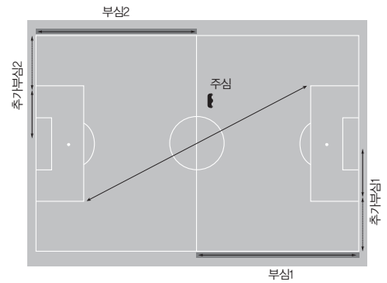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흔히 포함한다.

- 경기자, 사용될 볼 그리고 선수의 장비 검사하기
- 장비 또는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결정하기
- 시간, 득점, 불법행위의 기록 유지하기

포지셔닝과 팀워크

1. 경기 중 일반적인 위치

추가 부심의 위치는 골라인 뒤쪽이다.



추가 부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2. 골킥

추가 부심은 볼이 골 에어리어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볼이 정확하게 놓여 있지 않다면, 추가 부심은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3. 페널티킥

추가 부심은 골라인과 골 에어리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부심은 최종 두 번째 수비수 라인에 위치해야 한다.

4. 승부차기

추가 부심은 각각의 골 오른쪽과 왼쪽, 골라인과 골 에어리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추가 부심은 볼 전체가 골라인을 넘어간 것이 분명할 때, 주심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5. "골-노골" 상황

추가 부심은 득점이 되었을 때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The Road to Brazil
로드 투 브라질

지난 11월 19일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32팀이 결정되었다. 개최국 브라질을 포함하여 지난 10월 FIFA랭킹 기준 상위 7개 팀 [스페인(1위), 독일(2위), 아르헨티나(3위), 콜롬비아(4위), 벨기에(5위), 우루과이(6위), 스위스(7위)]와 전세계, 대륙, 국가를 대표하는 32개 팀이 축구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 축제를 펼친다.



'그렇다면 세계인의 축제인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티켓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

● FIFA 가이드라인

FIFA는 티켓 세일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지난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다. 2013년 8월 30일 ~ 10월 10일 1차 판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100만 장의 티켓이 판매(11월 25일 기준)되었다.

2-1차 판매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시부터 진행되는 조 추첨 이후인 2013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다. 이 시기에 신청한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티켓 구매가 가능하며 이후 2014년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한다.

이후 2014년 4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마지막 3차 티켓 판매가 진행되며 이를 마지막으로 모든 티켓의 판매를 마칠 계획이다.

티켓 구매를 희망하는 축구팬들은 FIFA 티켓판매 사이트(http://www.fifa.com/worldcup/organisation/ticketing/apply-for-tickets/index.html)에 등록하여 구매 신청을 해야 한다.

축구 회화

축구팬 : Hi, Can I check whether my application has been made through the online ticketing website.
안녕하세요, 제 티켓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FIFA 티켓 담당자 : Of course! Can you give me your username please?
물론이죠! 그럼 아이디를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축구팬 : My username is 'KFATICKET.COM'.
제 아이디는 KFATICKET.COM 입니다.

FIFA 티켓 담당자 : Please give me a few seconds. I will find out for you.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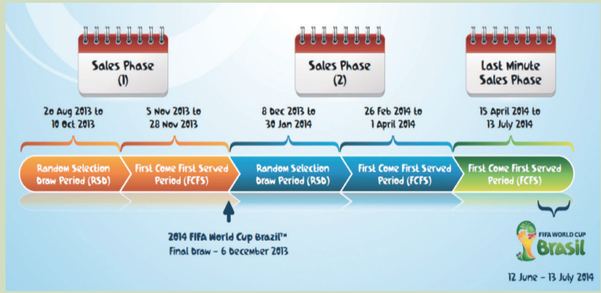
After a few seconds

FIFA 티켓 담당자 : Here you are! I can confirm you that your application has been successfully made.
여기 있네요. 확인해보니 성공적으로 신청되었네요.

축구팬 : Can you tell me when can I get the result of the random selection draw?
그럼 언제쯤 추첨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FIFA 티켓 담당자 : The ticket lottery will take place between 31 January and 25 February and we will notify all successful or unsuccessful applicants during the period.
추첨은 1월 31일에서 2월 2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축구팬 : Thank you.
감사합니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티켓 판매 계획, 출처 : FIFA 홈페이지〉

TOURNAMENT STAGE	MATCH NUMBER	CAT 1	CAT 2	CAT 3	DISABLED ACCESS TICKET
Opening Match	1	$495	$330	$220	$220
Group Stages	2 to 48	$175	$135	$90	$90
Round of 16	49 to 56	$220	$165	$110	$110
Quarter - Finals	57 to 60	$330	$220	$165	$165
Semi-final	61 to 62	$660	$440	$275	$275
3rd/4th Place Match	63	$330	$220	$165	$165
The Final	64	$990	$660	$440	$440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티켓 가격, 출처 : FIFA 홈페이지〉

‘2013 대교눈높이 초중고리그’ 챔피언 신정초, 울산 U-15팀, 포항 U-18팀

그들은 어떻게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장악했나?

초중고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이후, 모든 초중고 축구선수들은 하나의 꿈을 갖게 됐다. 왕중왕전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초중고 축구선수들에게는 ‘한국 축구 4강의 성지’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오르는 것 자체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하지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3월부터 9월까지 펼쳐지는 정규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후, 전국의 내로라하는 강팀들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야 한다. 일단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오르기까지 왕중왕전에서만 5승을 거둬야 하며, 대망의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1승을 보태야 한다. 1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웃을 수 있는 팀은 단 세 팀뿐이다.

올 시즌 그 영광의 세 팀은 신정초와 울산 U-15팀(현대중), 그리고 포항 U-18팀(포항제철고)이었다. 이들은 아슬아슬한 승부 속에서도 마치 승리의 여신이 점지해준 것처럼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행운뿐이었을까? 결코 아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한국 축구의 성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장악했다.





결승전 노하우? 그것은 경험과 세트피스!

초등리그의 우승팀 신정초는 경험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들은 왕중왕전이 시작된 2009년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 초대 우승팀이 됐고, 지난 2012년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3년은 세 번째 도전이었던 셈. 신정초에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가 있었다. ‘디펜딩 챔피언’ 신정초와 그 아성을 무너트리려는 부산 U-12팀이 펼친 결승전은 학원팀과 클럽팀의 자존심 대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두 팀은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결을 펼쳤고, 0의 균형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험의 차이는 분명했다.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는 사이에도 신정초는 차분했다. 부산 U-12팀의 플레이에는 변수가 많았던 반면, 신정초는 안정된 전력으로 경기를 풀어 나갔다. 벌써 세 번이나 결승전 무대에 오른 함상헌 감독의 경험이 묻어났다. 상대의 강점인 중원 대결을 과감히 포기하고, 안정된 수비를 구축한 후 긴 패스를 활용해 경기를 이어나갔다. 중원에서의 변수를 줄이겠다는 의지였다.

신정초는 이날 최전방 세 명의 공격수 중 한 명을 처진 위치로 끌어내렸다. 두 명의 미드필더와 처진 공격수는 늘 삼각형을 이루었고, 자연히 중원이 두터워졌다. 부산 U-12팀의 에이스 오상준을 막기 위한 승부수였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5경기에서 12골을 넣은 부산 U-12팀은 오상준이 묶이면서 침묵했다.

동시에 함 감독은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고 세트피스나 필드골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상대가 코너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어느 지점에서 골이 날 것인지를 예상했다. 신정초는 일주일간 코너킥을 중점적으로 연습했다. 결과적으로 코너킥 상황에서, 그것도 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점에서 정확히 결승골이 터졌다.

두 가지 전술적인 선택 외에도, 함 감독은 일주일 내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결승전의 경험, 이동거리, 경기장 상태 등 모든 것이 신정초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선배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경험했던 신정초 선수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제 역할을 꼿꼿이 수행할 수 있었다. 결승전이라는 부담감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함 감독은 “지금까지 결승전을 경험하면서 우러나온 것들이 100”라며 우승의 원동력을 소개한다. 결승전을 앞두고 긴장을 하기보다, 이제는 상대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다. 신정초의 사상 첫 왕중왕전 2연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가 주효한 셈이다.



극적인 우승 뒤에는 최강이라는 믿음

이번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가장 극적으로 승리한 팀은 울산 U-15팀이었다. 반대로 가장 억울하게 패한 팀은 그들의 상대 인천 U-15팀(광성중)이다. 인천 U-15팀은 경기 내내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었다. 올 시즌 무패행진에 전관왕을 달리던 울산 U-15팀보다 분명 더욱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게다가 선제골도 먼저 넣었다. 연장 전반 1분 오른쪽을 돌파한 추민열의 크로스를 김보섭이 멋지게 마무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천 U-15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2분을 버티지 못했다.

울산 U-15팀의 김도균 감독 역시 고전을 인정했다. 그는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상대의 강한 정신력과 투지에 눌렸다. 기본적으로 뛰는 양에서 밀리다 보니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며 결승전을 분석했다. 힘, 제공권, 높이, 스피드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던 울산 U-15팀은 인천 U-15팀에 완벽히 압도당했다.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첫 패배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울산 U-15팀은 우승을 할 줄 아는 팀이었다. 올 시즌 참가한 네 개 대회를 우승하면서 울산 U-15팀은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우승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김도균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 방법은 포지션 파괴였다. 경기 초반 공격수로 나섰던 주장 육근혁을 중앙 수비수로 끌어내리더니, 선제골을 내준 후에는 이윽고 다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올려세웠다. 수비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덕분에 육근혁에게 붙었던 상대의 그물수비는 다소 헐거워진 상태. 4강전에서도 홀로 두 골을 넣은 육근혁의 존재감은 무거웠고, 육근혁이 최전방으로 복귀하는 순간 인천 U-15팀이 받는 위압감은 대단했다. 결국 육근혁은 경기 종료 2분 전 단 한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스타의 존재감을 알렸다.

1-10이 되는 순간 인천 U-15팀에는 절망감이, 그리고 울산 U-15팀에는 희망이 샘솟는 것이 느껴





졌다. 승부차기로 돌입하게 되면 중등 최고의 골키퍼인 울산 U-15팀의 문정인 골키퍼를 인천 U-15팀의 2학년 민성준 골키퍼가 상대해야 하기 때문.

인천 U-15팀의 민성준 골키퍼는 세 개의 승부차기를 막아내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문정인 골키퍼는 네 개의 승부차기를 막았다. 결국 인천 U-15팀은 최고의 경기를 펼쳤지만 울산 U-15의 실력을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승부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황금의 스리톱 있기에… 한 골만 내주면 우승이다!

고등리그 우승을 차지한 포항 U-18팀의 가장 큰 무기는 경기당 평균 3.3골에 달하는 극강의 득점력이었다. 특히 '특급 유망주' 황희찬을 비롯해 '챌린지리그 MVP' 이광혁과 강기훈의 조합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들은 이번 왕중왕전에서만 14골을 합작하며 팀을 우승으로 인도했다. 포항 U-18팀은 왕중왕전 여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20골을 폭발시켰다.

따라서 포항 U-18팀 이창원 감독의 관심은 몇 골을 내주느냐였다. 물론 상대가 전북 U-18팀(전주영생고)이었기에 결코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전북 U-18팀에는 고교 최고의 골잡이라 불리는 김신이라는 스타가 있었다.

"김신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차태주를 내세워서 김신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옆에서 (곽)병석이와 (박)찬길이한테 촘촘히 막아달라고 미팅 시 말했다. 상대가 전북 U-18팀으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비디오 분석을 통해 김신만 막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하 이창원 감독

전북 U-18팀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다. 포항 U-18팀은 전반 6분 만에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으면 앞서 갔지만 결정적인 실점 기회를 몇 번이나 넘기며 가까스로 1점 차 승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포항 U-18팀은 '스틸타카'라 불리는 평소의 스타일을 버리고 수비에 치중하는 다소 의아한 전술을 선보였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이 승부수였다.

"상대는 김신 한 명이지만, 우리는 이광혁, 황희찬, 강기훈이 있었다. 시작할 때부터 2~3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를 포기하더라도 실점을 한, 두 골로 막으면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다."

이 감독의 계산은 그대로 적중했다. 비록 김신에게 한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이 포항 U-18팀의 공격수들은 두 골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3-1 완승.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항 U-18팀의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전술적이었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있었다.

"결승전은 실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 전북 U-18팀이 강하게 나올 걸 알고 있었다. 평소처럼 미드필드 플레이를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상대의 미드필드 벽을 한번에 넘기는 플레이를 하자고 했다. 평소의 우리와는 달랐지만 계산된 작전이었다."

이창원 감독은 "상암이라는 큰 경기장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련했다"라며 승리의 이유를 밝혔다. 그의 말처럼 포항 U-18팀은 조금 더 유연한 전술을 보여줬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의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우승팀의 특별함이라면 바로 이것 아닐까? ⓒ KFA





고등리그 우승팀 포항 U-18팀



노정윤, 일본 J리그를 뒤흔든 최초의 한국인

노정윤(42)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축구 스타가 아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 존재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일본 J리그에서 보내 국내 팬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A매치 43경기 출전에 5골을 기록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저돌적인 질주와 악바리 같은 승부욕, 노정윤에게서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부평고 재학 시절 U-16 대표팀에 발탁됐고, U-17 FIFA 월드컵, 1994 바르셀로나 올림픽 등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친 대한민국 축구의 엘리트였다. 그는 국내에서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4 FIFA 미국 월드컵'과 '1998 FIFA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구선수였다.


2000년 아시안컵


1999년 천선경기 벨기에전



인천 가정초에서 시작, 부흥초 거쳐 부평동중으로

인천 토박이로 잘 알려진 노정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좌동의 가정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난 그는 형과 함께 달리기라면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가정초등학교는 아주 조그만 학교였는데 당시만 해도 시골이었죠. 이름도 없는 학교였는데, 축구 시합에 나가 인천시에서 4강에 들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 부흥초로 전학을 간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였어요."

부흥초를 졸업한 그는 부평동중, 부평고로 진학을 하며 '인천 축구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물론 당시에는 '인천 축구의 엘리트 코스'라는 말은 없었다. 노정윤이 재학 시절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것이 부평동중과 부평고를 명문으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부평고는 운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때


1993년 J리그 첫 진출 노정윤_김장헌


1994 월드컵 스페인전

고명수 감독님을 필두로, 김봉길, 임종헌 선배가 있었고, 제 후배로는 이임생, 곽경근 같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죠. 당시 마산공고와 우리가 전국에서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했죠. 하루에 네 탕씩 뛰었으니까요."

U-16 대표팀 선발, 진정한 엘리트 코스의 시작

노정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부평고 1학년 때였다. 그는 198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U-16 챔피언십에 출전했고, 주전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멤버가 좋았죠. 정광석 선배도 있었고…. 거기서 우승하고 나서 (신)태용이 형이랑 서정원 선배가 합류한거죠.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우승한 것이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아시아를 제패한 U-16 대표팀은 이듬해 캐나다에서 열린 'FIFA U-17 월드컵'에 출전했다. 당시 U-17 대표팀은 미국을 꺾으며 1승 1무 1패로 8강에 올랐지만 이탈리아에 0-2로 패했다.

"예선에서 미국이랑 할 때는 제가 골도 넣고 우리가 되게 잘했어요. 이탈리아랑 할 때 우리가 골을 넣었다면 아마 새로운 역사를 썼을 거예요. 우리는 체력이 강했죠. (웃음) 키는 다 조그만했는데 엄청 잘 뛰었죠."

노정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연소로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될 정도로 특대형 유망주였다. 그가 깬 기록은 1971년부터 이어오던 차범근 현 SBS 해설위원의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그보다 선배인 홍명보(현 국가대표팀 감독)보다도 먼저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 충격의 크라머 감독 경질

그는 일찌감치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지만, A매치 데뷔는 생각보다 늦었다. 국가대표팀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U-16 대표팀 시절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노정윤은 1991년 데트마르 크라머 감독을 만나게 된다. 독일 출신의 크라머 감독은 그때는 억압된 분위기에서 운동만 하던 젊은 선수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크라머 감독을 만나면서 제 축구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당시만해도 축구를 하다 은행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죠. 대학교 2학년 때 크라머 감독님을 만나면서 독일, 스페인에 가서 게임을 뛰었어요. 해보니까 해 볼만 하거든요? 그때부터 축구에 올인하게 된 거죠."

"이전의 지도자와는 많이 달랐죠.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 선수들이 그 분을 존경하지만, 저도 그 분을 제일 존경해요."

당시 올림픽 대표팀은 1986년부터 시작된 U-16 대표팀의 발전형이었다. 아시아대회와 세계대회를 거치며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다들 대단했죠. 스피드 축구였어요. 미드필드에 김병수 선배 등 워낙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았죠. 서정원, 나승화, 신태용이 사이드에 있어서 미드필드에서 뻥 때리면 따라가서 다 잡고 그랬어요."

하지만 올림픽 대표팀이 본선행을 확정 짓자 갑작스레 크라머 감독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믿고 따르던 선수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올림픽 대표팀은 3무로 아쉽게 조별예선에서 탈락했다.

한국 축구 최초의 J리거 탄생, 배신자의 멍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난 1992년의 겨울. 노정윤에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K리그 드래프트를 거부하며 돌연 J리그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친 노정윤에게는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이 향했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서 1993년 J리그 개막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프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했죠. 당시 저는 K리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J리그에서 실패하면 갈 데가 없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말 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J리그의 출범과 함께 최초의 한국인 J리거가 됐다. J리그는 1993년 대대적으로 시작됐는데, 운동 여건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한다.

"저는 한국 대표팀이기도 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보다는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와 생활습관이 다르잖아요. 또 전 프로 경험도 없었고, 스스로 몸 관리하는 방법도 몰랐죠. 나름대로 외국인 선수인데 9경기까지 한 골도 못 넣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노정윤은 일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다. 일본 선수들은 노정윤의 언어 습득 능력을 항상 칭찬했다.

"외국인 선수들은 시합이 끝나면 다음날 무조건 일본어 학원을 가야 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말을 했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인터뷰를 하게 됐죠. 할 게 없으니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데뷔 첫 해 34경기에 출전해 9골을 넣은 그는 이듬해 당시 J리그의 연봉 인상 기록을 세웠다. 1년 만에 연봉이 3.5배가 상승했다.

아쉬웠던 두 번의 월드컵… 경험 부족과 부상

일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노정윤은 이듬해 열린 '1994 FIFA 미국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됐다. 하지만 일본에 있다 보니 대표팀에서의 훈련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지금도 후회로 남았다.

"그때가 스물네 살이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죠.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그랬죠.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되는 게 월드컵에서 활약을 못했다는 거예요."

김호 감독이 이끈 1994 미국 월드컵 대표팀은 2무 1패를 기록하며 아쉽게 조별예선에서 탈락했다. 특히 조별예선 3차전이었던 볼리비아전이 아쉬웠다. 0-0으로 비겼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8 FIFA 프랑스 월드컵에도 참가했다. 당시 그는 네덜란드 NAC 브레다 소속이었는데 월드컵 예선전을 단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참가해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하지만 차범근 감독은 흔들리지 않고 그를 선택했다.

"사실 프랑스 월드컵을 하기 두 달 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죠. 대표팀이 체코에서 연습경기를 해서 갔는데 그 경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전을 앞두고 몸을 풀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졌어요. 그걸 참고 뛰었는데, 경기 끝나고 바로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네덜란드와의 2차전은 못 뛰었어요."

전성기를 보낸 세레소 오사카

산프레체 히로시마에서 5년을 보낸 노정윤은 돌연 유럽 무대 진출을 노렸다. 독일 FC쾰른에서는 입단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설움도 겪었다. 그는 네덜란드 리그의 NAC브레다로 이적해 1년 반을 뛰었지만 유럽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 다시 J리그로 돌아갔다.

"사실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몸이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허리 수술도 했고, 양쪽 무릎 수술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몸이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네덜란드 리그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일본에 돌아갔을 때는 시야가 좋았죠. 패스 미스를 별로 안 했어요."

당시 세레소 오사카에는 황선홍(현 포항 감독)과 윤정환(현 사간도스 감독)이 노정윤과 함께했다.

"정환이가 가운데, 저는 오른쪽, 선홍이 형이 앞에 있었죠. 이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선홍이 형이 득점왕 할 때였는데, 선홍이 형한테만 도움을 7개를 했어요. 잘 맞았죠."

만년 하위팀이던 세레소 오사카는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2000년 상반기 2위에 올랐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으면 우승할 수 있었지만 하위팀이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패한 것이 뼈아팠다. 세레소는 그 이후에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33세로 K리그 데뷔… 울산에서 마무리

2001년 세레소 오사카를 떠난 그는 아비스파 후쿠오카를 거쳐 2003년 부산으로 이적했다. 1993년 대학 졸업 이후 10년 만의 국내 무대 복귀였다.

"2002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직후여서 운동장 시설도 좋고 재미있었어요. 부담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은퇴할 수 있어서 좋았죠. 나이는 있었지만 충분히 할 만했어요."

그는 부산에서 후반전 교체 멤버로 활약했다. 출전 시간은 적었지만 1년에 30경기를 뛰기도 했다. 2005년에는 울산 현대로 이적해 울산의 K리그 우승을 도왔다. 1994년 히로시마에서의 우승 이후 11년만의 우승이었다.

"강한 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울산도 오랜만에 우승을 한 거였고, 항상 막판에 무너졌는데 제가 후반에 나가서 분위기를 바꿔준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즐겁게 은퇴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팅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정윤은 2007년 8경기를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저의 선수 시절은 도전이었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었고….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일교포 때문이었어요. 원정 경기를 갈 때마다 항상 태극기가 있었어요. 90년대에 일본에서 태극기가 흔들린 거죠.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 K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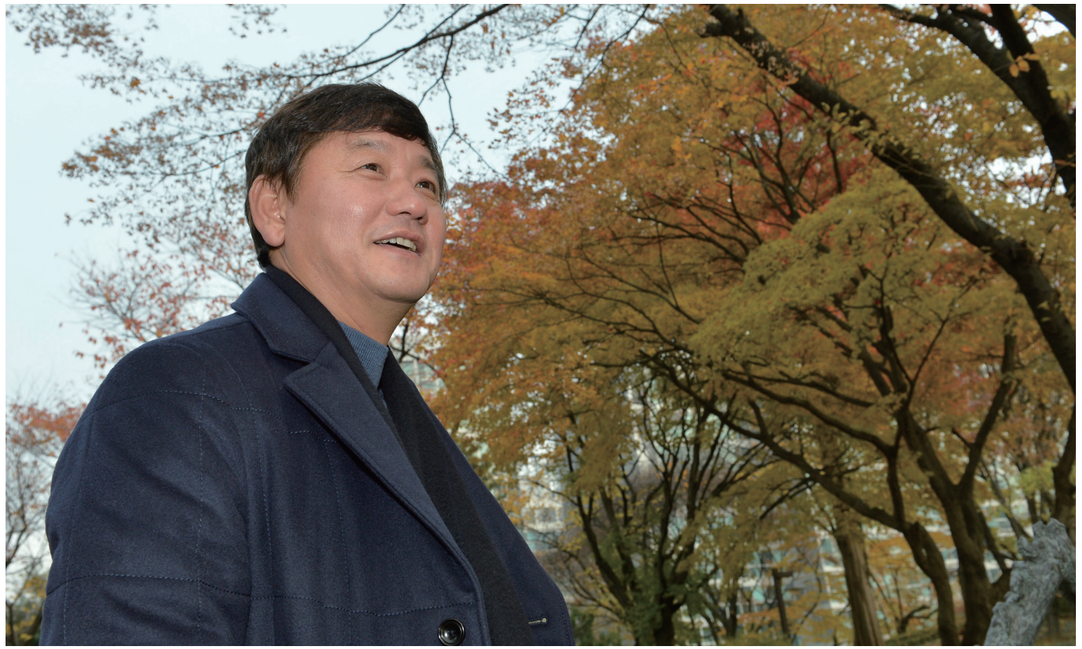

2004년 부산


2005년 K리그 우승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이광종 감독

"이탈리아의 수비 조직과 빠른 공격에 스페인의 빌드업을 섞을 것"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선장으로 한국 축구를 가장 뿌리깊게 이해하는 바로 그 사람, 이광종 감독이 선임됐다. 2000년부터 13년간 KFA 전임지도자로 활약한 이광종 감독은 U-17 대표팀과 U-20 대표팀을 차례로 세계 8강에 올려놓은 실력파다.
그는 뚜렷한 색깔이 없고, 성인팀을 지도한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올림픽 대표팀이 아닌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맡으며 검증을 자처했다.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도 28년 만의 금메달을 호언장담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아시안게임 개막을 9개월 앞둔 이광종 감독을 만나 그 자신감에 대해 물어봤다.



감독 선임 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바빴을 것 같다.
코칭스태프(최문식, 이운재)를 선임 중이고, 1월 11일부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 파악에 주력했다.

지난 '2013 FIFA 터키 U-20 월드컵' 8강 이후 만날 시간이 없었다. 먼저 지난 대회에 대해 듣고 싶다.
4강까지 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아쉬웠다. 훈련의 기회나 조직력을 만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프로팀 소속 선수들이 늦게 소집돼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

언론에서는 역대 최약체라고 표현했다. 주축 선수들도 부상으로 이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자신감이 넘치셨다.
U-20 월드컵은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U-20 선수들은 완벽히 완성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력만 잘 갖추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언론에서는 우리 팀이 최약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11명이 잘 만들어서 경기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경쟁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선수들은 지도자 말을 잘 듣고,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오는 편이다. 물론 세계와 우리 사이에는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팀 조직이다.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세계 수준보다 좋다.

8강전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로 졌다. 'AFC U-19 챔피언십' 결승에서도 이라크와 승부차기를 했는데 당시는 이겼었다.
'AFC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도 이라크와 승부차기를 했기 때문에, 이라크 골키퍼가 우리 선수들의 방향이나 습성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부담감을 가졌다. 경기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선수들에게 승부차기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U-20 월드컵'은 이제 지난 일이 됐다. 이제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급하지는 않다. 먼저 1월 11일부터 'AFC U-22 챔피언십'이 열린다. 그것을 대비해서 12월 중순부터 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어떤 선수를 뽑을지는 머릿속에 다 준비돼 있다. '2011 FIFA 콜롬비아 U-20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 내년 7월에는 올림픽 지역 예선도 있는데, 그 팀에는 올해 U-20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줄 생각이다.
1월 대회를 마치고 나면 3월쯤에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고, 5월에는 프랑스 툴롱에서 U-21 대회가 있다. 이 대회는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참가할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월드컵 기간 동안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훈련할 예정이다.

선임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 우승을 호언장담하신 것이 화제가 됐었다. 상당히 과감하셨는데, 평소 성격은 어떠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평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선수들 대할 때도 그렇다. 내가 솔직해야 선수들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요즘은 언론과의 관계도 전략이라고 말을 한다.
언론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다. 언론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써주고, 잘한다면 잘한다고 써주길 바란다.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일각에서는 감독님이 성인팀 지도자 경력 부재를 불안해한다.
전술, 훈련 방법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 선수



인 이상 이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선수를 믿고, 선수도 나를 믿어야 한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은 '덕장'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감독이라면 지장, 덕장, 용장 세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한다. 지금은 감독이 피지컬 트레이닝까지 다 하는 추세다. 감독이 피지컬에서부터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통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끔은 선수단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외부 피지컬 트레이너 정도는 활용할 생각이다.

선수 시절 K리그에서 10년간 미드필더로 뛰셨다. 미드필더로서 36골이나 넣었다. 공격적인 선수였나?
그때 미드필더는 체력적으로 많은 요구를 받았다. 내가 체력이 괜찮았다. (웃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스토퍼를 봤다. 대학교에 가면서는 수비수를 했는데, 갈수록 위로 올라가서 미드필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럼 감독님은 수비에 치중하는 편인가?
현대 축구는 수비에 안정을 두면서 공격을 해야 한다. 60%는 수비가 더 중요하다. 문단속을 잘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도 수비에 치중하면서 공격을 한다. 수비 조직은 전체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공격수들은 개인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한다. 수비에 안정을 두면서 공격 전술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요구한다.

감독님의 축구 철학은?
선수가 지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선수가 잘되길 바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팀 조직도 잘 이루어져서 팀이 더 강해진다.

축구팬들은 성적과 동시에 화끈한 경기력을 원한다.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싶나?
일단 성적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한다. 준비 과정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를 중시한다. 경기력이 좋아야 관중이나 팬도 좋아한다. 경기력이 좋으면 자연스레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수비 조직을 튼튼하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역습하는 스타일이다. 스페인은 빌드업을 통한 조직적인 축구를 한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생각이다. 단단한 수비, 높은 점유율, 빠른 공격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아시안게임에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 군 문제에 대한 압박이다.
우리가 꼭 군 면제에 목적을 두고 경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과 팬을 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선수들이 그걸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고 왔으면 좋겠다.

아시안게임이 홈에서 열리는데 부담은 안 되나?
어느 대회나 지도자가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다. 나는 성격상 그런 걸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좋은 경기를 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

인터뷰 감사하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팀을 이끌길 바란다. ⓒ KFA

KFA 활동보고

KFA 창립 80주년 '비전 해트트릭 2033' 선포



'KFA 창립 8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이 22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성대하게 개최된 이 자리에서 정몽규 KFA 회장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1933년 9월 19일 발족한 이래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날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는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KFA는 '비전 해트트릭 2033'도 발표했다. '비전 해트트릭 2033'이란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향하면서 KFA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꿈꾸고, 즐기고, 나누며'의 세 가지 비전아래, 다섯 가지 추진 목표가 담겨 있다. 이용수 단장은 100주년 이후에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몽규 회장, FIFA 방문… '2017 U-20 월드컵' 비드북 제출



KFA 정몽규 회장이 스위스에 위치한 FIFA(국제축구연맹) 본부를 방문해 '2017 FIFA U-20 월드컵' 비드북(Bid Book)과 개최협약서(Hosting Agreement)를 제출했다.

지난 11월 14일 FIFA 본부에서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을 만난 정몽규 회장은 '2017 FIFA U-20 월드컵' 비드북과 개최협약서를 전달하며 유치 의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부의 박위진 체육국장도 동행해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7년 U-20 월드컵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12개국으로 알려졌다. '2017 U-20 월드컵' 개최국의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가대표팀, 유럽의 강호 스위스-러시아 상대로 1승 1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11월 열린 스위스-러시아와의 평가전을 1승 1패로 마감했다.



국가대표팀은 지난 11월 15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위스전에서 홍정호-이근호의 연속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19일 두바이 원정으로 치러진 러시아전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대표팀은 전반 이른 시간에 김신욱이 득점에 성공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전 · 후반 각각 한 골씩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올해 소집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내년 1월 다시 소집해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광종 감독, U-22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2013 터키 FIFA U-20 월드컵'에서 8강을 이끈 이광종 감독(49)이 U-22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까지다.

지난 11월 5일 U-22 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에 나선 이광종 감독은 "1986년 이후에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못하고 있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아에서는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당히 목표를 밝혔다. 이광종 감독은 내년 1월 오만에서 열리는 'AFC U-22 챔피언십'을 통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이어 내년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담금질에 돌입한다.

'아듀 No.12' 이영표 은퇴식, 3만개의 종이비행기와 함께 성대하게 열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영표의 국가대표 은퇴식 '아듀 No. 12'가 지난 11월 15일 스위스전이 열린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정몽규 회장은 이영표에게 '골든슈'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영표의 친정팀 안양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지역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이영표의 고별인사 도중 3만개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장관도 열렸다. 이영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축구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당부했다. 공식으로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한 이영표는 향후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U-14 대표팀, '2013 한국-독일 정기 교류전' 2패로 마감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4 대표팀이 독일과의 교류전 2연전을 2패로 마감했다.

U-14 대표팀은 지난 11월 5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대표팀은 후반 24분 정우영(매탄중)이 만회골을 터뜨렸으나 더 이상의 득점이 없어 패했다. 7일 열린 두 번째 경기는 1-3으로 패했다. 전반 막판 선취골을 내준 뒤 후반 초반 김동균(광양제철중)이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후반 들어 연달아 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시작된 한-독 교류전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유럽 선수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교류전 사업은 독일 축구의 발전 노하우를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축구사랑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 KFA 임직원 60여명이 지난 11월 5일 서울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3월에 방문한 서울 꿈나무 마을, 8월의 서울 SOS 어린이 마을에 이은 세 번째 봉사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 최순호 부회장, 홍명보 감독 및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윤덕여 여자대표팀 감독, 이광종 U-22 대표팀 감독 등 각급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참석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정몽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랑 나눔을 강조했고, 첫 공식 일정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KFA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꾸준히 되돌려줄 계획이다.

체육인재육성재단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 체결

KFA가 체육인재육성재단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난 11월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육인재육성재단과의 MOU는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중 · 장기 발전방향 수립, 교육 ·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보 · 컨텐츠 공유 등에 관해 양 기관의 협력 및 교류의 강화가 목적이다. 또한 축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MOU도 체결했다. KFA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 ·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협력 ·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대, 홍익대 꺾고 U리그 챔피언 등극

영남대가 비수도권 최초로 U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결승'에서 영남대가 홍익대를 꺾고 U리그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영남대는 전반 류재문과 후반 정대교의 연속골에 힘입어 홍익대를 2-0으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했다.

영남대는 U리그 최초 비수도권 지역 우승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 동안 U리그는 2009년 단국대, 2010년 연세대, 2011년 홍익대, 2012년 연세대 등 수도권 팀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포천시민축구단, 챌린저스리그 챔피언 등극!

포천시민축구단이 챌린저스리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포천은 지난 11월 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주시민축구단과의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성남, 강석구, 심영성, 서동현의 연속골로 4-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통합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포천은 탁월한 노련미로 돌풍의 파주를 잠재웠다. 파주는 6강 플레이오프부터 청주직지FC-경주시민축구단-화성FC를 차례로 꺾으며 상승세를 탔지만 포천을 넘지 못해 무릎을 꿇었다. 이번 우승으로 포천은 챌린저스리그 역사상 대회 최다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다.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3회다.

'2013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나이키 풋볼리그 왕중왕전' 성황리에 마무리

교복을 입은 학생 선수들의 꿈의 무대, '2013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나이키 풋볼리그 왕중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이번 왕중왕전은 지난 11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그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이날 전야제에는 최근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한 이영표가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이영표는 학생 선수들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싸인 축구용품도 전달하기도 했다.

24일에는 여자부 결승전과 남자 초등부 결승전이 열렸다. 여자 고등부는 제주여고가, 여자 중등부는 경기 설봉중이, 여자 초등부는 충북 홍광초가 우승컵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 우승은 경기 원정초에게 돌아갔다. 이어 25일 열린 남자 중 ·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각각 서울 중앙고와 제주제일중이 왕중왕에 올랐다.



'2013 유 · 청소년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 모두의 축제로 막 내려

유소년 아마추어 축구의 축제, '2013 유 · 청소년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의 우승팀이 모두 가려졌다.

U-18 결승전에서는 울산의 MUGEO(무거고)가 지역 라이벌 달천F.C(달천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확정했다. U-15 결승에서는 제물포FC가 전년도 챔피언 포항제철중을 잡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했다. U-12는 대구 샬롬코리아사커스쿨이, U-10은 삼성 리틀윙즈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편 U-12 파트에서 우승을 거둔 대구 샬롬코리아사커스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으로 스페인 축구 연수를 떠난다.

풀뿌리 축구, 생활에 스며든 축구를 지향하는 유 · 청소년클럽축구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대회 결과

• SCORE BOARD







1. 국내대회 결과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챔피언 결정전

날짜 2013년 11월 9일

결과 우승–포천시민축구단 / 준우승–파주시민축구단 / 3위–화성FC, 경주시민축구단

2013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

날짜 2013년 11월 7일 ~ 22일

결과 우승–영남대 / 준우승–홍익대 / 3위–광주 호남대, 부산 동아대

2013 대교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날짜 2013년 10월 19일 ~ 11월 9일

결과

고등부 우승–포항 U-18팀 / 준우승–전북 U-18팀 / 3위–부산 부경고, 서울 중경고

중등부 우승–울산 U-12팀 / 준우승–인천 U-12팀 / 3위–경기 백암중, 수원 U-15팀

초등부 우승–서울 신정초 / 준우승–부산 U-12팀 / 3위–경기 신곡초, 용인FC유소년

2013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나이키 풋볼리그 왕중왕전

날짜 2013년 11월 22일 ~ 25일

결과

남자부

고등부 우승–서울 중앙고 / 준우승–경기 동탄고 / 3위–경북 동지고, 제주제일고

중등부 우승–제주 제일중 / 준우승–순천금당중 / 3위–경북 안강중, 전북중

초등부 우승–경기 원정초 / 준우승–강원 남산초 / 3위–울산 월봉초, 제주 한라초

여자부

고등부 우승–제주여고 / 준우승–서울 가락고 / 3위–경기 경화여고, 통영여고

중등부 우승–경기 설봉중 / 준우승–제주 신성여중 / 3위–포항제철중, 대전구봉중

초등부 우승–충북 홍광초 / 준우승–강원 동화초 / 3위–포항양덕초, 울산 학성초

신한은행 2013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날짜 2013년 11월 20일, 23일

결과 1차전– 경주 한수원 1–1 울산 현대미포조선 (경주시민운동장)

2차전– 울산 현대미포조선 2–1 경주 한수원 (울산종합운동장)

※ 울산 현대미포조선, '신한은행 2013 내셔널리그' 챔피언 등극!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순위 (12월 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1	포항 스틸러스	38	74	21	11	6	25
2	울산 현대	38	73	22	7	9	26
3	전북 현대	38	63	18	9	11	12
4	FC서울	38	62	17	11	10	13
5	수원 블루윙즈	38	53	15	8	15	7
6	부산 아이파크	38	52	14	10	14	2
7	인천 유나이티드	38	50	12	14	12	2
8	성남 일화	38	60	17	9	12	9
9	제주 유나이티드	38	58	16	10	12	5
10	전남 드래곤즈	38	40	9	13	16	–11
11	경남FC	38	37	8	13	17	–13
12	강원FC	38	36	8	12	18	–27
13	대구FC	38	32	6	14	18	–21
14	대전 시티즌	38	32	7	11	20	–29

※ 포항 스틸러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우승!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3' 순위 (12월 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골득실
1	상주 상무	35	77	23	8	4	34
2	경찰 축구단	35	64	20	4	11	13
3	광주FC	35	53	16	5	14	1
4	수원FC	35	47	13	8	14	2
5	FC안양	35	45	12	9	14	–1
6	고양Hi FC	35	41	10	11	14	–7
7	부천FC 1995	35	33	8	9	18	–16
8	충주 험멜	35	29	7	8	20	–26

※ 상주 상무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3' 우승!

2. 국제대회 결과

남자대표팀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 친선경기'

날짜 2013년 11월 15일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상대 스위스 국가대표팀

결과 **대한민국** 2–1 **스위스**

득점 홍정호(후13'), 이청용(후41' 이상 대한민국) / 파팀 카사미(전6' 스위스)

남자대표팀 해외 원정 친선경기

날짜 2013년 11월 19일

장소 UAE 두바이 자벨 스타디움

상대 러시아 국가대표팀

결과 **대한민국** 1–2 **러시아**

득점 김신욱(전6' 대한민국) / 스몰로프(전12'), 타라소프(후14' 이상 러시아)

'2013 한국–독일 U-14 대표팀 교류전'

	일시	결과	장소	득점
1차전	11월 5일	대한민국 1–2 독일	독일 뒤셀도르프	정우영(후25')
2차전	11월 7일	대한민국 1–3 독일		김동균(후1')

AFC 챔피언스리그 2013 결승전 (2차전)

날짜 2013년 11월 9일

장소 중국 광저우 톈허 스타디움

결과 FC서울 1–1 광저우 에버그란데

득점 데얀(후17' 서울) / 엘케손(후13' 광저우)

※ FC서울, AFC 챔피언스리그 2013 준우승!